

“1억 벤츠 전기차, 1년만에 5천만원대로 반토막”

중고차 플랫폼 ‘첫차’ 9월 시세 2023년식 EQE 350+ 44% ↓ 기아 쏘렌토·현대 더 뉴 그랜저 IG 등 하이브리드 모델은 ↑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2024년 9월 친환경차 중고차 시세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하락, 하이브리드는 일부 모델 위주로 시세가 오르는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첫차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거래량이 많았던 전기·하이브리드 중고차 20종을 선정했다. 출고 6년 이내, 10만km 이하 주행거리를 보유한 매물 기준 9월 현재 판매가를 토대로 중고차 시세를 분석했다. 전기차의 신차 대비 데이터는 서울시 기준 보조금을 반영한 가격과 중고차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기아 쏘울 EV를 제외한 전 모델의 시세가 하락했다.

특히 화재 사건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벤츠 EQE 350+ 모델의 경우, 2023년식 기준 현재 최저 5천700만원부터 최대 6천800만원 사이에서 중고 시세를 형성했다. 1억380만원에 달하는 신차 가격과 비교하면 출고 이후 1년 만에 44% 하락한 것이다. 2021년식 EQA 250 또한 전월 대비 2.7% 하락했으나 신차 가격 대비 하락폭은 31%에 불과하다.

반면 중고차 가격 방어에 가장 우수한 차는 제

2024년 9월 중고 전기차 판매 시세

모델	연식	시세 (만 원)	신차대비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2021	3,650~4,500	전월대비 -6.0%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익스플루시브	2022	2,499~3,100	전월대비 -2.7%
...
벤츠 EQE EQE350+	2023	5,790~6,800	전월대비 -3.4%

네시스 전기차다. 순수 전기차 전용 모델인 GV6 0 스탠다드 2WD는 최저 4천300만원부터 시작하며, 신차 가격과 비교 시 차이가 적다. G80의 전기차 버전인 일렉트릭파이드 G80은 신차 대비 3.1% 저렴한 5천449만원부터 시작한다. 다만 전월 대비 9.7% 떨어져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보였다. 중고 전기차 중 가장 수요가 높은 테슬라 모델

3는 2021년식 롱 레인지 기준 전월 대비 6% 떨어졌다. 모델 Y 롱레인지도 4.7% 떨어져 최저 4천340만원에서 5천49만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다. 모델 Y의 경우 7월부터 신차 가격이 300만원 인하되면서 중고차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차와 달리 하이브리드차는 모델별로 시세 동향이 상이했다.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은 기아 쏘렌토 4세대(MQ4) HEV 1.6 2WD 시그니처는 전월 대비 5.6% 오르며 평균 시세가 2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더 뉴 그랜저 IG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전월 대비 2.6% 올랐다.

수입 하이브리드차 역시 중고 시세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2019년식 렉서스 ES 7세대 300h 럭셔리 플러스는 전월 대비 1.9% 올랐다. 신차 대

비 39% 저렴한 최저 3천7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출고 이후 5년이 지난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에 준수한 편이다. BMW 5시리즈 7세대 530e M스포트는 4.4% 가량 시세가 대폭 올랐다.

중고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현대 그랜저 IG 또는 K5 하이브리드 3세대를 추천한다. 하이브리드차는 기본 차량 가격이 높아 구매 시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두 모델은 신차 대비 약 40% 내외로 감가돼 구매에서부터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첫차 관계자는 “9월 중고 전기차 시세는 대부분 떨어졌지만, 당분간 수요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라며 “유지비가 저렴한 친환경차 출고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위주로 매물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은행-광은리더스클럽, 지역사회 발전 솔선수범

‘엔젤하우스’ 등 사회복지시설 나눔 행사...생필품·성금 전달

광주은행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랑 뜻을 모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남구 소재 ‘엔젤하우스’와 서구 소재 ‘효드림실버홈’에서 진행됐으며,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은 각 시설에

생필품을 비롯한 필요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으며 김병내 남구청장도 동행해 뜻깊은 나눔 봉사 시간을 가졌다. <사진>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2007년에 창립해



현재 2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은 물론이고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복지시설 및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박철홍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은 “지역 최고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은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국민과 함께 119 메모리얼데이
1st 119memorialday

2024. 10. 5. 10:00 |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

소방체험 스템프투어 ····· 추모 전시 ····· 추모 퍼레이드 ····· 추모 공연 경연대회



확 달라진 총장로 1가 입구 광주 동구가 호남 대표 상권인 총장로 1가 입구 일원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포스터를 제거하는 등 환경 재정비를 통해 세단장을 마쳤다. <광주동구주재>

한병준 44대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고품질 전력 안정 공급...공감·배려 넘치는 조직문화 만든다”

한병준 제44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

한병준 본부장은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또한 “광주전남본부는 전국 15개 지역본부 중 관할 지역이 제일 넓고 특수설비를 비롯한 전력설비를 가장 많이 관리·운영하고 있어 책임감이 크다”며 “한전의 최우선 가치인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혁신을 통한 재무위기 극복과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한전 광주전남본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본부장은 765KV 송전망 건설사업과 동남권 초고압 전력망 구축사업 등을 주도하며 국내 송변전 계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했으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출신인 한병준 본부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헬싱키 경제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093년 한전에 입사한 이후 본사 송변전 운영처 변전운영실장, 서울본부 전력관리처장, 본사 송변전운영처장 등을 역임했다. /임재만 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 #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